

한국의 전통적 위생상의 풍습에 대한 문헌적 고찰(Ⅱ)

이정숙·이성우*

대전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1992년 3월 25일 접수)

A Bibliographical Study of Korean Traditional Sanitary Customs(Ⅱ)

Joung Sook Lee and Sung Woo Lee*

Daejeon Medical Junior College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Hanyang University*

(Received March. 25, 1992)

ABSTRACT

A Bibliographical study were designed under the purpose of the prevention and remedy in Dysentery, A boil, Syphilis, Pest and Pulmonary distoma by the Korean traditional sanitary customs and a superstition.

The method of the Korean Traditional Folk Remedy used in this area was mainly food, which can be easily found around their house and easy to use.

I. 서 론

우리 조상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속의 식품을 이용하여 생명을 이어 가는 일에서부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까지 활용하고 있었는데, 약종에 식품이 있고 식품 중에 약이 있다. 즉 먹는 식품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¹⁾고 하였고, 이것의 근본이 되었던 것을 토속신앙이었던 미신에 의한 의식행사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醫의 古文字는 醫이다. 醫를 풀어보면 医는 矢(화살)와 같은 무기를 감추어 둔 상자이고, 殳(병기의 한가지 수)은 무기의 일종이며, 巫(무당 무)는 무당이나 승려를 상장한 것이다. 영양 건강 관리는 무당이나 승려들의 손에 의하여 주술적(방예, 풀이)인

수단으로 담당된 것으로 「주례」에서도 병 치료에 의사와 무당이 함께 참여하여 왔다.

주술적인 영양 관리법은 어떤 식물을 내복하여 체내에 숨어 있는 악귀에 고통을 주어 죽애내려는 경험에 쌓여서 神農氏의 전설에 얹히는 本草學의 원형을 넣게 되었을 것이다.²⁾ 이것이 점차 민간요법으로 발전하여 전해 내려왔을 것이다.

민간요법은 어느 나라에서나 그 민족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치료법으로서 자연성 草木이 대부분이므로 한의학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한의학에서와 같이 생리, 병리, 治法, 治方이 정연하게 있지 않고, 경험에서 나온 단순하고 소박한 방법이다. 따라서 민간요법이란 문화 집단에 의해 오랫동안 경험을 통하여 유도된 것으로서 은연중 관행되어온 의료 체제

나 행위로서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口頭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며 문화적 발전과 더불어 장기간의 자연 도태를 거쳐서 지역이나 민족 고유의 경험 의술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 민간 요법은 자가 치료의 한 방법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현대 의학의 도입 이후 그 이용도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인데³⁾, 이러한 전통적인 민간 요법이 전래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본 연자들은 적리(이질), 종기(부스럼 포함), 매독, 폐스트, 폐디스토마에 대하여 우리나라 각 지방에서 식품을 이용하여 행하여온 미신요법에 대하여 1926년 경 일제하의 도관찰부 위생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참고본으로 하여 문헌적인 고찰을 해 보았기에 발표하는 바이다.

II. 본 론

1. 赤 痘

1) 충청남도

- ① 환자의 기호물인 과실, 신선한 생선류를 배 부르도록 먹으면 완치한다(홍성, 서산)
- ② 鱓膠(민어알) 속에 달걀 3~4개를 넣어 삶아 염분을 가하여 환자에게 복용시키면 완치한다(서산).
- ③ 탁주에 송화와 설탕을 혼합하여 이것을 달여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공주, 홍성).
- ④ 송화분과 옛과 술을 혼합하여 삶으면 효과가 있다.(사천, 공주).
- ⑤ 홍시 또는 오랫동안 보존된 옛을 먹으면 완치한다(서산).
- ⑥ 味增과 무잎을 많이 먹으면 효과가 있다(온양).
- ⑦ 달걀에 鍋墨를 혼합하여 불태워, 그 재를 온수로 마시면 아메바 적리에 효과가 있다(공주).
- ⑧ 고추가루를 냉수에 혼합하여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조치원).
- ⑨ 돼지고기를 먹으면 효과가 있고, 설탕물을 음용하면 곧 치료된다.
- ⑩ 적리에는 소나무의 껍질을 분말로 해서 봉밀을

혼합하여 복용하고, 또는 탁주에 면류를 혼합하여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⑪ 적리에 전염되면 酒糟에 설탕을 가득 넣어 포식하면 곧 완쾌한다.

2) 경기도

① 일부의 몇몇 사람은 우리나라 적리는 內地의 적리와는 달라, 과한 음식으로 일어나는 것이면 內地 적리와 같이 전염력은 강하나 사망률이 적어 예방의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② 적리는 우리나라 사람에 있어서는 보통의 병기와 같다고 생각하고, 태연히 환자에게 접촉하고, 환자를 배려하여 격리시키지 않고, 보통의 음식을 주고, 타인을 접하는 것이 평상과 같고, 특히 환자를 위한 의료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적리가 음식물을 많이 섭취한 때문에 腸加答兒로 일어난 것이면 최초에 먹은 물건을 소량의 염을 가하여 겸게 태워 끓는 물로 복용하면 완치된다고 전해지고, 또한 櫟(먹지죽나무)의 껍질을 건조하여 분말로 해서 密樹水 또는 설탕물에 용해시킨 것을 도약이라 하여 복용했다.

④ 적리는 역질이라 부르는 경증의 痘氣라 믿고, 복약치료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면 완치될 것으로 낙관하고, 또 여름과 가을의 기후에는 반드시 유행하며, 전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비듬」을 끓이어 고추액에 혼합하여 이를 먹으면 곧 완치된다고 전해진다.

⑤ 적리에 가장 기이한 효력이 있는 치료법은, 개의 骨을 겸게 태워 그 재를 복용하면 곧 완치한다.

⑥ 사발에 물을 담아 그 물에 설탕을 혼합하여 마시면 설사가 멎추고, 적리는 완치된다.

⑦ 적리에 전염되었을 경우 23년전의 乾神를 먹으면 완치될 수 있다.

⑧ 옛을 온돌 입구의 재와 혼입하여 먹으면 완치한다.

⑨ 소나무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하여 꿀에 섞어서 먹을시는 완치한다.

⑩ 아편재를 물에 용해하여 마시면 효과가 있고, 또 토끼의 粪을 보리 끓인 물로 삶으면 효과가 있다

表 1. 적리를 예방·치료하기 위해 미신요법으로 이용된 식품

지역	미신요법에 이용된 식품
충청남도	과실, 신선한 생선류 민어알, 달걀, 염분 탁주, 송화, 설탕 엿, 술 홍시, 오랫동안 보존된 엿 미종, 무잎 달걀, 鍋墨, 태운 재 고추가루, 냉수 돼지고기, 설탕물 소나무 껍질 분말, 봉밀 탁주에 면류 주조에 설탕
경기도	최초에 먹은 것을 태운 것, 염분, 끓는 물 나무껍질 건조분말, 밀감수, 설탕물 비듬, 고추액 개의 骨 태운 재 설탕물 23년 묽은 꽃감 엿, 온돌 입구의 재 소나무 껍질 분말, 꿀 아편재, 토끼 粪 달걀, 초 묽은 장유 돼지기름, 앵두나무 액즙, 송화 가루, 봉밀 매연, 甘水
경상남도	신선한 생선, 소의 음부 엿, 黑煤, 술 鴉片 재 개의 骨 태운 재
경상북도	전나무 잎 재
전라남도	꽈, 고추, 장유 술, 감 물, 탁주 숫소, 암소의 角 태운 분말, 장유 주조, 설탕, 梅花只穀
전라북도	흑아편

지역	미신요법에 이용된 식품
합경남도	갈매기털 태운 재
평안남도	고추 꿀 닭, 餅米 고양이의 간장 구렁이의 분말 소나무제의 세탁봉 태운 재 개의 粪 옻나무의 재, 개의 머리, 코 솔의 墨 냉수 석탄, 목탄 황적색의 뱀 호박씨, 꿀
황해도	소나무 새싹 즙 매추라기 鍋墨, 봉밀 돼지고기 감, 봉밀 소주, 생달걀 개의 혈액 피마자유, 달걀 물 야채류 모밀, 돼지고기, 호초유, 고추 끓인 물

고 전해진다.

⑪ 적리에 전염되면 卵 3개를 초에 담그어 1, 2일 밤을 夜露를 받게 하여 다음날 아침에 삼키면 효과가 있다.

⑫ 4, 5년 경과된 醬油를 홍문에 넣으면 치료되고 전해지고 있다.

⑬ 적리병에는 돼지기름을 마시고, 또는 앵두나무에서 착취한 액즙을 마시면 치유된다고 하고, 또는 송화가루를 물로 삼키고, 혹은 송화가루에 봉밀을 혼합하여 1일 수회 음용하면 효과가 있고, 높은 굴뚝에 부착된 매연을 甘水로 혼합해 이를 음용하면 효과가 있다.

3) 경상남도

- ① 신선한 생선 및 소의 음부를 먹으면 완치한다.
- ② 옛과 솔아래의 黑煤를 술에 섞어서 끓여서 마시면 완치한다.
- ③ 鴉片 재를 녹여 마시면 완치한다.
- ④ 개의 骨을 검게 태워 그 재를 마시면 완치한다.

4) 경상북도

- ① 전나무잎을 태워 그 재를 물로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5) 전라남도

- ① 과에 고추를 醬油로 볶아 넣어 이를 먹으면 완치한다. 또 술에 감을 넣어 이를 먹으면 완치한다. 노술에 감을 넣어 달여 복용하면 치유한다.
- ② 물을 혼합한 탁주를 밤중에 밖에서 차게 하여 다음날 이를 삼키면 완치한다.
- ③ 남자는 솟소의 角, 여자는 암소의 角을 태워 분말로 해서 장유에 녹이어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 ④ 酒槽에 설탕을 혼합해서 끓인 것에 한약(槐花只穀)을 성인은 1회 3刄5分, 소아는 1刄5분을 혼합해서 매시간 달여서 음용하면 완치한다.

6) 전라북도

- ① 흑아편 약 5분을 적당량의 물에 녹이어 이를 복용하면 2, 3일내에 완치한다.

7) 함경남도, 평안남도

- ① 갈매기털을 태워 그 재를 온수에 혼합하여 복용하면 완치한다.
- ② 고추를 다량 먹으면 적리에 전염되지 않는다.
- ③ 봉밀을 다량 먹고 물을 마시면 하루내에 완치한다.
- ④ 닭 1마리의 腸에 餅米를 채워 넣어 삶아서 전부 먹으면 완치한다.
- ⑤ 고양이의 간장을 건조분말로 만든 것을 복용한다.
- ⑥ 구렁이를 분말로 해서 복용하면 완치한다.

⑦ 우리나라 소나무로 만든 세탁봉을 태워 그 재가루를 봉밀에 용해 혼합하여 음용한다.

⑧ 밭 가운데 돌위에 있는 개의 糞을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으로 주워 태워서 清水에 넣어 음용하면 완치한다.

⑨ 옻나무의 쟈 또는 개의 머리와 개의 코를 먹으면 완치한다.

⑩ 가마솥 아래에 부착된 墨을 취해 봉밀에 혼합하여 마시면 완치한다.

⑪ 일시에 다량의 냉수를 복용하면 유효하다.

⑫ 석탄, 목탄을 먹으면 완치한다.

⑬ 황적색의 뱀을 잡아 삶아서 먹으면 완치한다.

⑭ 호박씨를 분말로 해서 꿀을 혼합하여 먹으면 완치한다.

8) 황해도

- ① 소나무의 새싹을 으깨어 그 즙을 복용한다.
- ② 메추라기를 태워서 먹는다.
- ③ 솔아래에 부착된 鍋墨을 취해 봉밀에 용해하여 음용한다.
- ④ 돼지고기를 다량 먹는다.
- ⑤ 감에 봉밀을 혼합하여 먹는다.
- ⑥ 소주에 생달걀을 혼합하여 복용한다.
- ⑦ 소나무의 겹질 또는 송화를 분말로 해서 복용한다.
- ⑧ 개의 生血을 써서 환자의 신체를 씻는다.
- ⑨ 茶碗위에 젓가락 2개를 十字로 옮겨 놓고 그 안에 물을 담아 그 물을 전부 음용한다.
- ⑩ 피마자유에 달걀을 넣어 이를 끓여서 음용한다.
- ⑪ 腸內에 다량의 혈액이 滯滯가 있기 때문에 糞 배출시 고통을 느끼는데 야채류를 폭식하면 혈액은 이에 흡수되어 배출되어 나가 완치하는데 이를 먹는다.
- ⑫ 모밀에 돼지고기, 호초유, 고추를 넣어 끓여 음용한다.
- ⑬ 하룻동안 끓인 물을 인가에서 약2리 정도 떨어진 산간지에서 10일간 놓아둔 후 그 물을 음용한다.

2. 肿物(종가와 부스럼 등)

1) 경기도

① 신체에 다수의 肿物이 생길때는 人肉을 먹으면 치유된다고 믿는 者가 있다.

2) 경상남도

① 종물에는 舊12월 晦日의 밤중에 생을을 되비 속에 묻어 놓고 사람에게 알리고 꺼내어 12개를 먹으면 완치한다.

② 신체에 종물이 있을시는 닭의 粪을 먹으면 완치한다.

3) 전라남도

① 종물의 주위에 인분을 도포하면 완치한다.
② 보리잎 21매를 취하여 끓으로서 종물 및 보리

앞에 墨을 붙여 「魚吞鮎吞相吞病絕止」라 주문을 말하고, 1회마다 黑點을 종물 및 보리잎에 찍은 후 그 보리잎을 밥에 으깨어 종이에 늘어 놓아서 局部에 붙이면 완치한다.

③ 소를 도살한 경우 내장을 꺼내어 배설물을 싸서 局部를 따뜻하게 한다.

④ 소의 변을 도포하면 열기를 내어 곧 완치한다.

4) 함경남도·평안남도

① 人糞, 牛糞 또는 人牛糞을 혼합한 것을 도포 한다.

② 아이의 종물에는 화약을 밥으로 갈아 으깨어 도포하면 완치한다.

5) 함경북도

① 인후에 종물이 있어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밥을 짓는 솔 또는 鍋底등에 브

표 2.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미식요법으로 이용된 식품

지역	종물(腫物)	매독(梅毒)	페디스토마	페스트
경기도	인육			
충청남도		死人의 肉, 2液汁 오징어, 미증유 苔樣, 찹쌀 人骨 骸인 물	달걀	
경상남도	생을 닭의 粪	동물의 음경(특히 사람의 것이 유효)		
전라남도	보리잎, 밥	수은, 주사		
함경남도	밥, 화약	인육	소량의 술	人糞
평안남도		死人의 코, 음경 人骨 馬糞	藻屑계, 장유 생달걀, 생굴 소의 혈액, 엿 태반, 대두 두발, 참기름	
함경북도	달걀의 흰자 개의 腦骨			
황해도		새끼돼지, 염류 음경 人腦	생모려 매미 紫草葦 달걀	

착된 墨을 긁어 내어 이를 달걀의 흰자와 혼합하여 환부에 도포하면 완치한다(온성군 지방).

② 아동의 신체에 종물이 생길 경우에는 개를 도살하여 그 腦骨을 잘라내어 이를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있다(동지역)

3. 梅 毒

1) 충청남도

① 死人의 肉 또는 그 液汁을 마시면 매독은 곧 완치한다(서산).

② 환자에게 알린 상태에서 환자의 상아래에 오징어를 3일간 넣어 놓은 후 이로써 味嚙汁을 만들어 이를 먹으면 효과가 있다(홍성).

③ 소변 항아리에 부착된 箸樣의 것을 찹쌀과 혼합하여 떡 또는 단자를 만들어 이를 먹으면 매독은 배유된다(공주).

④ 매독에는 人骨 끓인 물이 효과가 있다(공주).

2) 경상북도

① 동물의 陰莖을 달여서 마시면 효과가 있고, 특히 사람의 것이면 그 효과는 현저하다.

3) 전라남도

① 수은 및 朱沙를 혼합하여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4) 함경남도, 평안남도

① 人肉을 환자에게 알리고 먹이면 완치한다.

② 死人의 코 또는 陰莖을 검게 태워서 복용하면 완치한다.

③ 人骨을 검게 태워서 복용하면 완치한다.

④ 馬糞을 달여서 복용한다.

5) 황해도

① 새끼돼지를 완전히 익혀 염류를 뿌려 식용한다.

② 陰莖을 달여서 복용한다.

③ 人腦를 먹는다.

4. 腺디스토마

1) 충청남도

① 페디스토마 환자의 구토물을 닦아 먹고, 그 닦의 卵을 사람이 먹으면 페디스토마 환자가 낫는다고 전해진다.

2) 함경남도, 평안남도

① 평소 소량의 술을 마시면 본병을 예방한다.

② 藻屑계의 腸과 다리를 제거하고, 장유로 끓여 먹으면 효과가 있다.

③ 생달걀 및 생굴을 다량 먹으면 치유된다.

④ 소의 혈액 또는 옛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

⑤ 태반을 몰래 취해 세척하여 대두를 크게 말아 1일 수십粒宛, 23회 복용하면 중증이면 치유된다.

⑥ 두발을 검게 태워 참기름을 혼합하여 복용한다.

3) 황해도

① 해안으로 거주를 옮겨 살아있는 모려를 수개월 또는 수년 먹는다.

② 매미를 음건하여 분말로 해서 마신다.

③ 紫草葦을 달여서 음용한다.

④ 달걀 가운데를 검은 실로 묶어 그 실의 한쪽을 인가 부근의 거목 가지에 묶은 다음 달걀을 지상으로 떨어뜨림과 동시에 該病을 떨어뜨려 달라고 크게 말하여 신에게 기도하고, 후일 그 달걀이 지상에 떨어져 파열하면 치유된다는 것이다.

5. 페스트

1) 함경남도, 평안남도

① 병이 유행시에는 쥐모양의 떡을 만들어 이를 먹으면 罷病된다.

② 人糞을 다량 먹으면 완치한다.

III. 결론 및 고찰

이상의 결과에서 赤痢에 대한 미신요법으로 주로

과일, 송화, 감, 달걀, 술, 꿀을 많이 이용하였고, 또 한 고추가루 같은 자극성이 강한 식품을 복용함으로써 치료된다고 믿어왔다.

한편 赤痢에는 개의 骨을 태운 재, 나뭇껍질을 태운 재, 동물의 粪, 매연, 墨, 갈매기털 태운 재, 목탄, 석탄 등을 복용했고, 腫物에는 人肉, 개의 腦骨 등을, 梅毒에는 人體의 어느 한부분을, 페스트에는 人糞을 복용함으로써 치유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미신요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폐디스토마에는 달걀, 생굴을 주로 이용하였다.

「규합총서」⁴⁾에서 적리에는 새로 난 연근마다를 곱게 찧어 뜨거운 술에 타 먹기도 하고, 赤色의 접시꽃 세송이씩 달여 먹기를 세번하면 완치되고, 神曲서돈을 空腹에 달여 먹고, 종일 음식을 안 먹으면 안낫는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적리가 발생하면 銀耳茶, 柿露茶, 石榴茶, 무궁화차, 木香茶를 마시면 효과가 있다⁵⁾고 하였다.

「산림경제」⁶⁾에서는 냉이줄기와 잎을 태운 재는 적리를 치료하는데 좋은 효력이 있고, 牛蒡子 세말을 정화수에 개어 떡을 만들어 배꼽위에 붙여주되, 하루에 두번씩 같아주면 滉熱되어 효과가 있다.

또 鯽魚(붕어, 부어)를 회를 만들어 먹으면 오래된 적리에 좋다고 하였다.

梅毒의 치료에는 香油 2근을 물 한잔에 넣어 달여 흰연기가 일어나면 거두어 저장해 두고 매번 黃酒,

1鍾, 향유 1잔을 넣어 하루에 세차례씩 따뜻하게 마신다. 이것을 다 먹으면 온전히 낫는다.

또 오리 한마리를 3일간 굽기며 맹물만을 주어 먹게 하고, 輕粉 1냥을 糯米飯 4냥에 고루 섞어 먹이되 오리가 다 먹기를 기다려서 갈대 뿌리로 쳐서 泡水를 부수어 오리에게 먹게 하여 경분의 독기를 풀리게 한다.

그리고 오리털이 다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잡아서 삶아 먹이면 신묘하다.

또한 木通과 菖蒲를 함께 달여 먹이면 매우 효력이 있다.

참고문헌

- 황호관 : 한국식문화학회지, 1(4), 311. 1986.
- 이성우 : 고려 이전의 한국식생활사 연구, 향문사, 1978.
- 이금숙 · 황춘선 : 한국식문화학회지, 5(3), 331. 1990
- 빙허각 이씨 원저 : 정량원 역, 규합총서, 보진재, 1975.
- 윤숙경 : 한국음식문화오천년전, 유림문화사, 1988.
- 재단법인 민족문화총진위원회 : 산림경제 II, 민문고, 1989.